

| Bi-Weekly |

신영 ESG

“ 여러 도전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재생에너지 산업 ”

Contents

ESG essay

신영's View

ESG 탐방 노트

포스코퓨처엠

ESG ETF 따라잡기

Oneascent International Equity ETF (OAIM)

ESG News Clipping



여러 도전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재생에너지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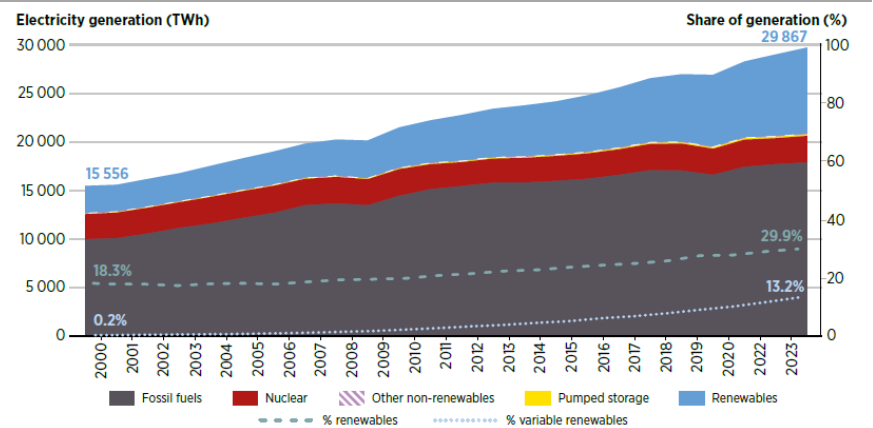
재생에너지원은 2023년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29.9%를 차지함 →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연평균 성장률(CAGR) +5.9% 증가해 같은 기간 동안 비재생에너지원(+1.3%)을 크게 앞지름

IRENA, 최근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25' 발표

최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 및 사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석 다루고 있는 자료인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25'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원은 2023년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29.9%를 차지하여 총 8,928TWh를 기록함. 나머지 70.1% (20,939TWh)는 화석 연료, 원자력, 양수 발전 및 기타 비재생 에너지원이었음.

총 전력 생산량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5%씩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연평균 성장률(CAGR) +5.9%로 증가하여 +1.3%에 그친 비재생 에너지를 크게 앞지르며 성장세를 기록함. 특히 분석 기간인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2년 대비 5.6% 증가한 반면, 비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같은 기간 1.2%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2010년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가변 재생에너지)였으며, 두 에너지는 합쳐서 2023년 전 세계 전력 믹스의 13.2%를 차지했으며, 2022년 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도표 1. 에너지원별 전력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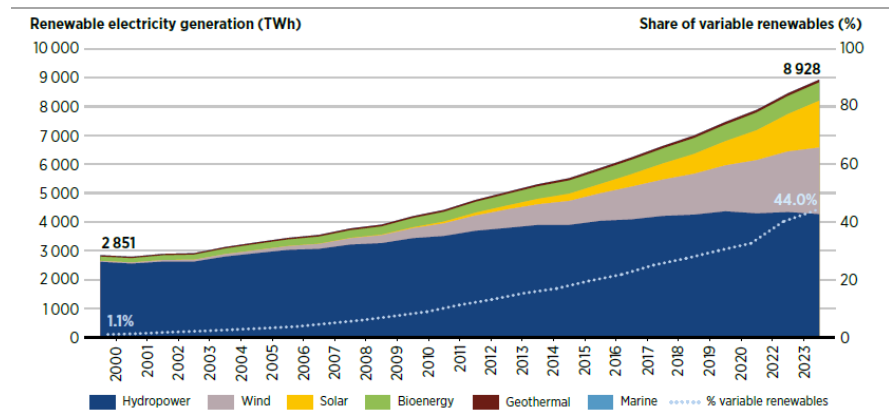
자료: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25,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지난 25년 동안 재생에너지원의 구성은 상당히 다양해짐. 재생에너지 중 수력 발전(양수 발전 제외)이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변형 재생에너지는 200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1.1%에서 2023년 44.0%로 꾸준히 비중이 증가함.

재생에너지원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력>풍력>태양광>바이오>지열>해양 순으로 구성됨

2023년 재생에너지 수력 발전은 4,270TWh를 생산하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2022년 대비 72TWh(-1.6%) 감소함. 한편, 재생 에너지원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수력 양수 발전량은 2023년에 5.5TWh(3.9%) 증가함. 풍력 발전량이 그 뒤를 이어 2,304TWh를 생산하며 직전 해의 13.9% 성장률에 비해 9.8% 증가함. 최근 몇 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재생 에너지원인 태양열 발전량은 1,624TWh로 전년 대비 25.2% 증가했으며,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성장률을 기록함. 바이오에너지는 632TWh를 생산하며 1.4% 증가했고, 지열 에너지는 98TWh, 해양 에너지는 거의 1TWh를 기록함.

도표 2. 재생 에너지원별 전력생산량 추이



자료: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25,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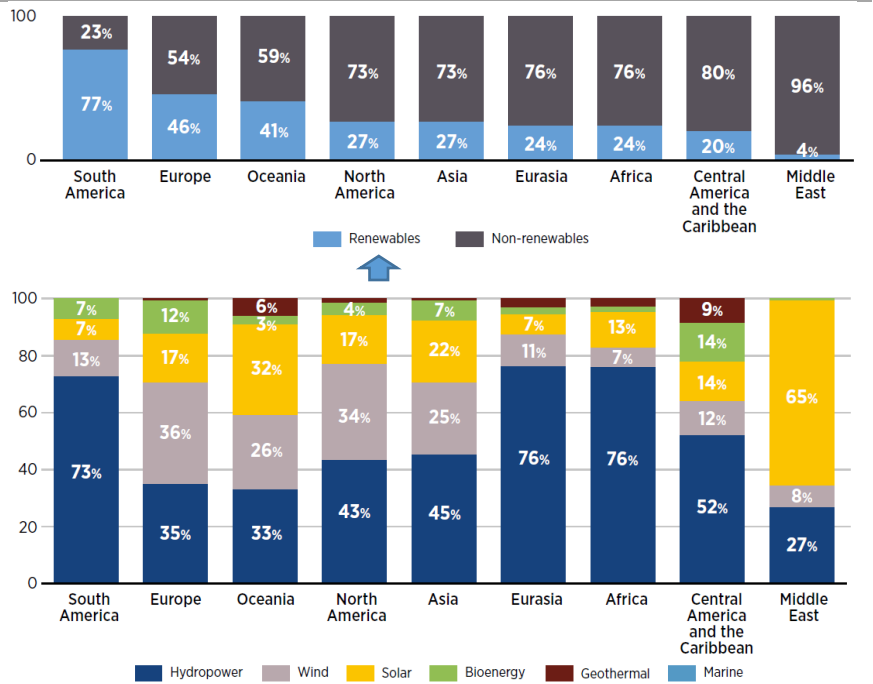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유럽, 북미 순이었음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이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4,008TWh로 1위를 차지함. 비록 수력 발전이 점유율과 발전량 모두 감소했지만,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높은 성장과 기타 발전원들의 성장으로 인해 6.9% 성장함. 유럽지역은 1,626TWh를 생산하여 11.4% 증가함. 이는 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바이오에너지, 지열, 해양 에너지의 감소를 상쇄했음. 북미는 1,452TWh를 생산하여 2022년 대비 2.9% 감소했고, 남미는 모든 발전원에 걸친 발전량 증가로 1,009TWh를 생산하여 2022년 대비 6.0% 증가함.

전력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미>유럽>오세아니아>북미/아시아 등의 순이었음

또한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23년)을 살펴보면 남미가 76.8% (대부분 수력)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유럽지역이 풍력·수력·태양광 혼합, 다양한 발전원의 영향으로 46.2%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오세아니아(40.7%), 북미/아시아(26.6%), 아프리카/유라시아(24.1%), 중앙아메리카/카리브(20.0%), 중동(4.3%) 순이었음

도표 3. 지역별 재생 에너지원별 전력생산량 비중



자료: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25,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재생에너지 설비 확장이 선진지
역·개도국간, 역내 차별화 현상
나타남 → 특히 아시아에 집중
되고 있는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이처럼 글로벌 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분야에서 고성장세가 지속되며, 설비
및 발전 양 모두 증가하고 있음. 특히 태양광과 풍력이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
으며, 전체 설비 투자 중 큰 비중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열
(Heat) 및 기타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아직 미진한 것으로 지적함.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장이 선진지역·개도국간, 역내 차별화 현상이 뚜렷
하게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는데, 2023년~2024
년사이 전 세계에서 추가된 582GW의 발전설비 중 무려 71%가 아시아에 집
중되었으며, 이 중 중국이 약 400GW가 증가해 압도적으로 선두를 차지함.
뒤를 이어 인도(25GW), 일본(4GW)였으며 국내는 3GW가 증설되는데 그침.

재정부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
급 강화,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
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
도로 건설 등을 추진할 예정으
로 향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가 기대됨 → 전세기
적으로 더욱 빠른 속도의 재생
에너지 설비 증설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이에 민관의 협력으로
보다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관
련 산업의 성장을 기대함

향후 우리정부는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할 예정으로 그 중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 다
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이에 따라 국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지난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UNFCCC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데 협
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의
설비 증설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최근 미국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큰 기회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됨. 이에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
기업의 적극 적인 투자와 민관 협력 등 보다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임.

ESG 이벤트 & 신영's View

샤오미의 전기차 베팅, 애플은 실패한 시장에서 성공한 비결은?

- 세계 최대 규모의 신차 시장과 주699 근무제(하루 20시간 R&D 체제) 등이 샤오미 EV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배경 중 하나
- 스마트폰, 가전을 바탕으로 한 샤오미 OS 생태계, 중국 젊은이들에게 어필하는 신기술 적용도 샤오미의 경쟁력

Comments

- 지난 3월, 샤오미는 '25년 판매 목표를 35만대로 상향한 바 있음
- 6월까지, 9개월 연속으로 월 2만대 판매를 지속상회하고 있으며, 두 번째 EV 모델인 YU7 확정 예약이 18시간만에 24만대를 기록
- 이에 25년 판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Analyst 문용권

KT, 2분기 주당 600원 배당 확정... '선배당 후투자' 도입

- KT는 금번 분기부터 '선배당 후투자' 제도를 첫 도입
- 투자자들이 배당 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한 뒤 투자 결정을 내리는 제도
- 주주 편의성과 ESG 경영 강화 차원에서 작년부터 '온라인 배당금 조회' 서비스 운영 중으로, 8월 8일부터 2분기 배당 내역 조회 가능

- KT가 2분기 주당 600원의 분기배당을 확정, 배당 기준일은 7월 30일
- 이번 분기부터 '선배당 후투자' 제도를 도입, 그동안 결산배당에만 적용되었지만, 이제 분기배당에도 배당을 확인 후 투자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행보는 주주권리 제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Analyst 정원석

EU ESG 펀드 명칭 규제 본격화...880개 ESG 펀드, 실질 변화는 12건

- ESG 펀드 이름만 바꿨다...EU 규제 대응, '외형 정비'에 그쳐 → '24년 5월~'25년 5월사이에 최소 880개의 펀드(AIF)가 'ESG', '지속가능성' 등 ESG 용어를 펀드명에서 삭제했으나 실제 전략이나 자산 구성을 변경한 사례는 12건(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ESMA, 명칭 사용 기준 명확화... '지속가능성'은 50% 이상 투자 필요
- ESG 마케팅 가이드도 발표...과장 표현·오해 유발 경고

Comments

- ESMA는 '24년 5월, ESG 펀드 명칭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며 총 6개 용어(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속가능성, 전환, 임팩트)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제시
- 환경(E), 사회(S)를 펀드명에 사용하려면 전체 자산의 최소 80%가 관련 ESG 특성을 반영해야 → 신규 펀드는 '24년 11월 부터, 기존 펀드는 '25년 5월부터 적용됨
- ESMA의 ESG 펀드 명칭 규제가 시행된 이후, 실질적 투자 전략 조정보다는 외형상 정비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주를 이룸 →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 투자 내용의 변화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할 것

-Analyst 오광영

포스코퓨처엠(003670.KS)

매수(TP 180,000원)

폴 밸류체인 공급망 관리

현재주가(7/21) 156,400원

ESG 등급 현황					ESG 등급 변화 (KCGS)		Key Data (기준일: 2025. 7. 21)		
(평가기관)	ESG	E	S	G			시가총액(억원)		121,152
KCGS	A+	A+	A+	A			배당수익률(24F, %)		0.0
Bloomberg	4.77	4.11	5.62	5.08			외국인지분율(%)		10.6
주: KCGS :S~D 7등급 Bloomberg: 10 만점 기준							주요주주 지분율(%)		포스코홀딩스 외 5 인 60.9 %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1.1 29.7 14.9~37.2
							KOSPI대비 상대수익률		13.9 0.5 -9.9~45.3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구 분	단위	2023	2024	구 분	단위	2023	2024	구 분	내 용
온실가스 배출량	천 tCO2eq	2,389	2,298	LTIFR	명/20만 시간	1.05	0.54	주주총회	2 주전 통지
폐기물 발생량	톤	30,072	33,554	기간제 근로자 비율	%	9.1	7.0	전자투표제	실시
환경관련 투자비	억원	55	1,071	여성 근로자 비율	%	6.7	6.7	집중투표제	배제
환경경영 인증	24 년 ISO14001 인증비율 100%			사회 공헌지출	억원	16.1	6.7	배당 실시	결산배당 (1 회)
환경경영 조직	친환경 경영활동 검토위원회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중			배당기준일	이사회 결의
								이사회 운영 실적	12 회, 사회이사 참석률 100%

ESG 관련 최신 활동

포스코퓨처엠, 지난해 부패 징계·해고건 수 늘어 (딜사이트, 25.07.17)	포스코퓨처엠, '그린워싱' 대응 위원회 신설 (블로터, 25.06.24)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대표, 안전보건 전면 재정비 (한국경제, 25.06.04)
- 포스코퓨처엠의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패에 따른 징계·해고 건수는 7건으로 집계. 2023년 4건보다 증가한 수치이며 임직원 수 대비 비율로 계산해도 부패 건수는 올라간 것으로 평가 - 내부통제시스템이 그만큼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함. 포스코퓨처엠은 신고 채널 접근성을 높였고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왔음. 젊은 직원들이 다수 유입되면서 부패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점도 이 같은 수치를 반영된 것	- 포스코퓨처엠이 그린워싱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전담 위원회를 신설. 최근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두고 가짜라는 인식이 퍼지며 규제가 강화되자 대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한 것 - 올해 '친환경 경영활동 검토위원회'를 신설. 위원회는 경영기획, 법무, 홍보, 환경 기획, 지속가능경영 등 관련 부서 내 그룹장 및 담당자 총 12명으로 구성	- 포스코퓨처엠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조직 문화 정착,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미래세대 위한 사회공헌, 노사 상생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 - 엄 대표는 안전보건을 이해관계자와 기업 생존을 잇는 가장 기본 가치로 규정.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국제표준(ISO 45001)에 맞춰 전면 재정비함 - 또한 PDCA 순환 체계를 도입해 유해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협력사까지 안전경영의 범위를 확대

ESG history

연 혁	내 용
2021	[E] 양극재, 음극재 공장 SIO14001 취득 [ESG] 책임광물 보고서 발간
2022	[ESG] ESG 채권 발행 [E] 음극재 환경성적표지 인증 [E] 양극재 환경성적표지 인증
2023	[S]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 [E]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CBD) 체결
2024	[ESG] 한국ESG기준원 2024년 ESG 평가에서 통합 A+ 등급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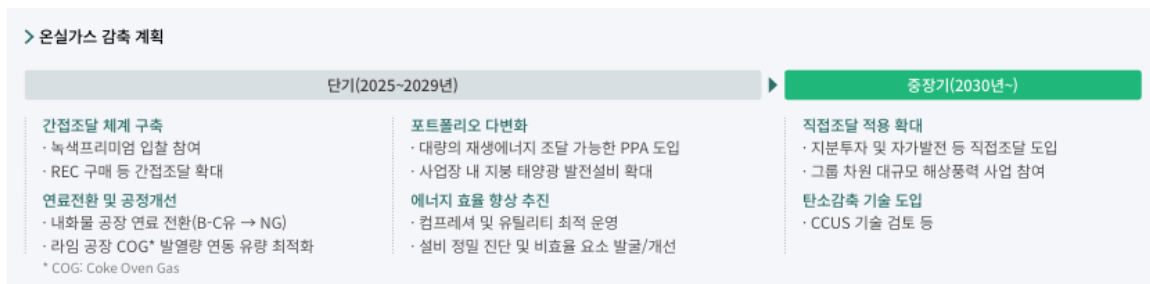
전 공급사 대상 ESG 리스크 진단 및 실사 추진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등 규제 강화로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 과제로 부상 중. 환경, 노동, 인권 등의 ESG 리스크는 고객 신뢰 저하와 규제 위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공급사의 ESG 리스크는 기업 전체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포스코퓨처엠은 지속가능한 밸류체인 구축을 위하여 '28년까지 전 공급사 대상 ESG 진단 및 실사를 추진. '25년에는 실사 대상의 63% 수준인 654개사를 실사 예정. 담당 경영진 및 관리자는 계획에 따라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

포스코퓨처엠 탈탄소 추진 방향 및 로드맵

포스코퓨처엠은 탈탄소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인 이행을 추진 중. 특히, 전사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를 차지하는 공정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및 CCUS 기술을 도입하 예정. 또한,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전력구매계약(PPA) 및 인증서(REC) 구매 및 직접 조달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조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방침. Scope 1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공정 개선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Scope 2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단계적 전환을 계획.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 지분투자 및 자가발전 공동 진입 등 직접조달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계획

포스코퓨처엠 단기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자료: 포스코퓨처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OneAscent International Equity ETF

(OAIM)

Key Facts		Top Holdings (기준일: 2025.07.15)		NAV와 운용자산	
상장일	2022/09/15	Indra Sistemas, SA	4.17%	(USD)	운용자산(우)
기초지수	-	KBC Group	3.82%		
구성종목수	50	Heidelberg Materials AG	3.49%	NAV(좌)	(\$mn)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222.6	Alpha Bank SA	3.31%		
시장가격(USD)	38.06	Mitsubishi Electric Corp.	2.99%	24.01	24.03
NAV(USD)	38.25	TSMC	2.82%		
총보수(%)	0.95	VINCI SA	2.79%	24.05	24.07
운용사	OneAsset Investment	Webuild SpA	2.66%		
		CRH public limited company	2.65%	24.09	24.11
		Siemens Aktiengesellschaft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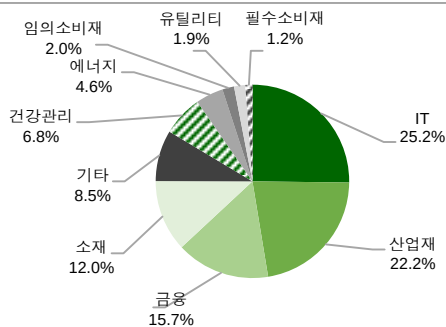
ETF 개요

OneAscent International Equity ETF(OAIM)은 2022년 9월 상장된 Active ETF임. OAIM운용팀은 먼저 낙태, 성인 엔터테인먼트, 담배, 도박, 인권침해, 약탈적 대출, 술, 마약, 심각한 윤리적 논란 기업을 제외하고 이후 'OneAscent Elevate Screening Process'와 '라이프사이클 투자 접근법'을 결합해 글로벌 주식 시장의 대형주 및 중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 OneAscent의 'Elevate Screening Process'는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합하여 투자 기업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방식임. 이는 단순한 기업의 ESG 스크리닝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분석하고 기초적 펀더멘털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Positive Screening 방식임. 또한 '라이프사이클 투자 접근법'은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를 통해 각 단계별로 지속적인 주주 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OAIM은 라이프사이클 스펙트럼 전반에 분산 투자하고 있음.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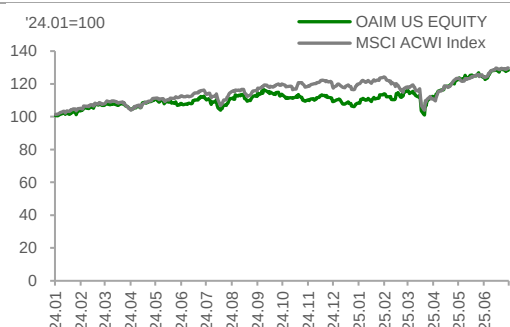
OAIM은 다양한 국가의 기업 중 OneAscent Investment만의 독특한 운용 전략인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와 라이프사이클 투자 방법을 결합을 통해 선별된 기업을 압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Active ETF임. 지역별로는 일본(19.6%), 캐나다(11.9%), 미국(11.2%), 영국(7.2%) 등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국 외 글로벌 시장에 노출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함.

OAIM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Oneascent Investment,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7.1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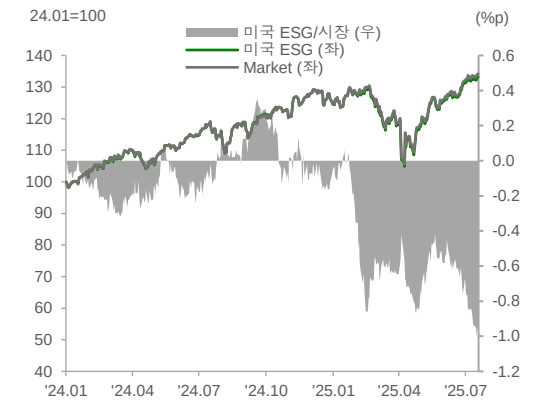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7.1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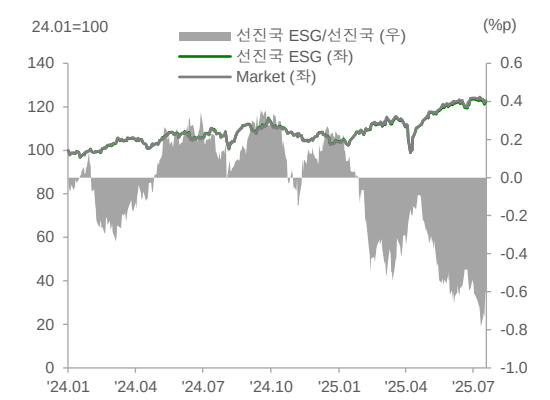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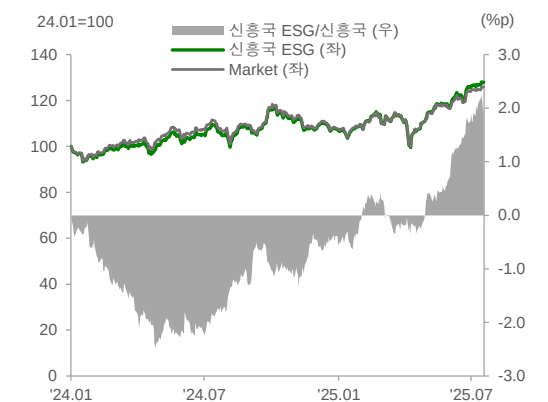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7.18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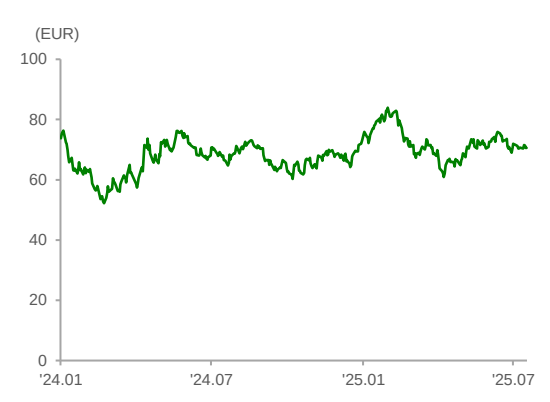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7.18 기준)

신흥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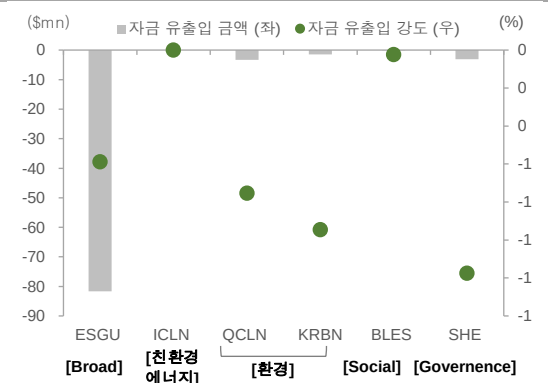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7.18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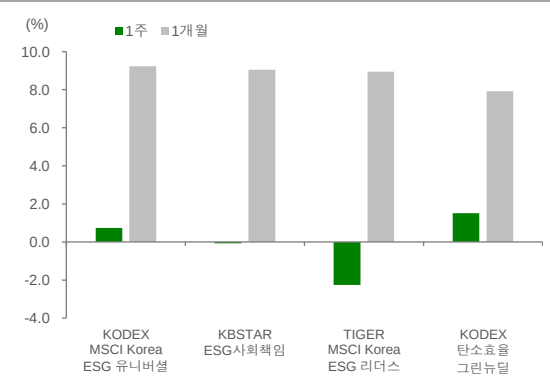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7.18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7.18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7.18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76,962	60	81.1%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6,347	13	6.7%	13.4%
3	Environment	5,896	13	6.2%	13.4%
4	Social	5,251	5	5.5%	5.2%
5	Governance	381	3	0.4%	3.1%
6	기타	38	3	0.0%	3.1%
ESG 전체		94,876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7.18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라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5 YTD	1개월	2025 YTD
Broad	ESGU	13,903	0.66	5.10	19.45	4.07	-82	-104	-0.6	-0.7
	ESGV	10,833	0.78	5.37	20.73	4.25	46	146	0.4	1.3
	SUSL	956	1.06	5.71	21.31	4.91	-5	-92	-0.6	-9.6
	NULV	1,741	0.12	3.32	10.59	3.64	0	1	0.0	0.1
	NUSC	1,161	0.02	5.00	16.66	-3.08	-12	-55	-1.1	-4.7
	ESGE	5,119	1.63	5.65	19.13	18.92	0	5	0.0	0.1
	ESGD	9,652	-0.28	1.83	8.87	14.64	0	303	0.0	3.1
	EAGG	3,960	-0.14	-0.17	0.05	1.05	57	283	1.4	7.1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1,444	0.31	5.53	16.77	17.50	0	-198	0.0	-13.7
	TAN	661	-0.71	16.77	34.27	9.94	-16	-210	-2.5	-31.7
Environment	QCLN	437	3.18	12.29	36.99	1.50	-3	-123	-0.8	-28.2
	SPYX	2,243	0.67	5.19	19.44	5.23	5	39	0.2	1.8
	CRBN	1,026	0.58	4.62	16.46	8.55	-10	-40	-1.0	-3.9
	KRBN	161	0.07	-1.99	8.44	1.73	-2	-41	-0.9	-25.6
Social	BLES	115	-0.34	2.47	12.46	8.19	0	-1	0.0	-0.6
Governance	SHE	262	0.59	3.82	15.55	6.27	-3	-6	-1.2	-2.3
	JCTR	6	0.75	5.09	18.77	4.03	0	-2	0.0	-29.8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7.18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 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5 YTD	1개월	2025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88	0.74	9.23	29.13	25.18	0.0	-20.8	0.0	-23.6
FOCUS ESG 리더스	126	0.30	8.20	29.67	27.20	0.0	50.0	0.0	39.7
KODEX 200ESG	387	0.32	9.18	28.29	23.65	-46.2	-65.1	-11.9	-16.8
KBStar ESG 사회책임	878	-0.07	9.04	32.06	25.72	-445.3	-1,626.3	-50.7	-185.3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80	0.75	9.21	30.72	26.82	0.0	0.0	0.0	0.0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92	-2.26	8.95	37.66	24.23	-3.1	-39.7	-3.4	-43.3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255	1.51	7.92	26.99	26.62	0.0	-17.2	0.0	-6.7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117	1.47	7.74	28.12	27.47	0.0	0.0	0.0	0.0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94	1.47	7.76	27.82	27.11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7.18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SG

[\(2025.07.16\) 삼성, 지속가능성 인식 가치 11조원, 글로벌 12위...1위는 애플 - ESG경제](#)

英 브랜드 파이낸스 SPV 보고서...현대 18위, SK 72위, LG 86위
톱10에 미국기업 5곳...독일 3곳, 중국 2곳...일본 도요타는 11위

E (환경)

[\(2025.07.07\) LG엔솔 2분기 영업이익 4922억원...美 IRA 세액공제 효과 - ESG경제](#)

AMPC 금액 4908억원...보조금 제외한 영업이익 14억원
6개 분기만에 AMPC 제외 영업익 흑자전환...매출은 11% 감소

[\(2025.07.09\) 샤오미의 전기차 베팅, 애플은 실패한 시장에서 성공한 비결은? - Impact-on](#)

'애플은 실패, 샤오미는 성공'...기술·자동차 업계 지형 바뀌
전방위 인재 영입·부품 투자로 자립형 공급망 구축
카피 논란·자율주행 사고에도 소비자 충성도 유지
글로벌 확장 예고...“후발주자에도 기회는 있다”

[\(2025.07.14\) CATL·LG엔솔·파나소닉만 '재생에너지+공급망 감축' 모두 계획... 7개사는 기준 미달 - Impact-on](#)

CATL·LG에너지 솔루션·파나소닉만 공급망 감축 목표 설정

[\(2025.07.15\) HSBC, 영국 은행 최초로 NZBA 탈퇴...다른 은행 연쇄 탈퇴 우려 - Impact-on](#)

유럽 내 다른 은행들에게도 영향...국제적 기후 협력 노력에 타격 예상

[\(2025.07.15\) 기아,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확대로 RE100 추진 가속화 - ESG경제](#)

국내 사업장 최초로 PPA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 오토랜드 화성에 도입
올해 하반기 중 국내 오토랜드 3개소 대상 PPA 전력 도입 확대 추진
국내, 미국, 인도 등 주요사업장에 태양광 자체발전설비 지속 구축 예정

[\(2025.07.16\) BHP, 中 CATL·BYD와 '광산 전용 배터리' 공동개발...ESS·금속 회수까지 확장 - Impact-on](#)

EV부터 ESS까지...‘광산 특화’ 배터리 기술 개발
순환경제 기반 수명주기 전략...공급망 지속가능성까지 확장

[\(2025.07.17\) 보조금 삭감에도...美 고속충전소 703곳 증가, 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 Impact-on](#)

민간 주도 확대...“정부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확장 계속”
테슬라, 이번 분기 신규 충전소의 약 15% 설치

[\(2025.07.18\) 키움증권, '25년 1호 지속가능연계채권\(SLB\) 주관 수행- 한국경제](#)

ESG 채권 시장 리딩 금융사 역할 수행...하반기 ESG채권 주관 실적도 '순항'

G (지배구조)

[\(2025.07.08\) 500대기업 여성임원 6년새 2배 급증...올해 처음으로 8% 돌파 - ESG경제](#)

리더스인덱스 분석...여성 사외이사 7.6배 늘어나 증가 주도
여성 사내이사 34명 중 40% 오너일가...대부분 대표이사 직급
생활용품, 제약, 서비스, 식음료 등 소비재 업종에서 비중 높아

[\(2025.07.15\) 주식 호황에 금융자주 경영진 자사주 역대 수익...매입단가 2배 속출 - ESG경제](#)

신한·하나·우리금융 나란히 최고가...올해 수익률 평균 60%
수익률 160% 넘는 임원도...책임경영이 '대박투자'로 돌아와

정책 ESG 뉴스

ESG

[\(2025.07.16\) SDG 달성을 35%...유엔, 식량·에너지 등 6대 전환투자 촉구 - Impact-on](#)

SDG 목표 진전율 35%...기후와 빈곤 지표는 후퇴
구테흐스 사무총장, 6대 전환 분야에 '집중 투자' 촉구

[\(2025.07.16\) EU, 대기업 ESG 공시 의무 2년 유예...웨이브1도 '스톱 더 클락' 수준 완화 - Impact-on](#)

"웨이브1도 유예 혜택"...750인 이상 기업도 단계적 적용
2027년까지 ESRS 전면 개편...적용 기업 기준도 상향 추진

[\(2025.07.16\) SBTi, '넷제로 표준 2.0' 초안 공개...과학기반 감축 검증 전면 개편 예고 - Impact-on](#)

2050년까지 95% 감축 요구...BVCM·제거 기준도 명시
글로벌 파일럿 시작...실제 적용성·데이터 검증 나선다

[\(2025.07.16\) ESRS, 공시 요구 최대 66% 감축 예고...선택항목 277개 삭제 검토 - Impact-on](#)

ESRS, 요구 데이터포인트 최대 66% 감축...
선택항목 277개 대부분 삭제 예정
TNFD, 자연 관련 ESRS(E2~E5) 기준 통합 제안...
공시 일관성·간소화 기대

[\(2025.07.17\) GRI, 섬유업 ESG 공시안 마련...기후·노동 등 18개 핵심 항목 제시 - Impact-on](#)

기후, 인권, 화학물질 등 18개 핵심 이슈 선정
국내 기업,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 가능

E (환경)

[\(2025.07.07\) 美 의회, EV 세액공제 9월 말 종료 확정...연비 규제도 완화 - Impact-on](#)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연비 규제는 완화
보조금 폐지로 EV 시장 성장 축소 우려
태양광, 풍력발전 연방 세액공제 2028년부터 완전 종료

[\(2025.07.14\) 美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FAQ 발표...2026년부터 스코프1·2·재무리스크 보고 개시 - Impact-on](#)

스코프1·2는 2026년부터, 스코프3는 2027년부터 공시...제3자 검증 단계적 시행
기후 재무리스크 공시는 2026년 1월 첫 보고...리스크 항목 및 회계연도 기준 구체화
워싱턴·뉴욕 등 유사 입법 확산...캘리포니아와 구조 유사

[\(2025.07.14\) 중국,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 ESG경제](#)

철강·시멘트 산업 및 일부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中 RPS, 발전사업자에서 다배출 기업 전력 소비자로 대상 확대
RPS·CfD로 재생에너지 발전 안정성과 시장 효율성 증가 꾀해

[\(2025.07.15\) 재생에너지 최대 70% 의무 + CfD 도입...중국 중공업 탈탄소 '아중 압박' - Impact-on](#)

지역별 자원 여건 따라 사용 비율 차등...완전 70%, 충칭 10.8%
전해 알루미늄에서 중공업 전반으로...적용 산업 대폭 확대
계약차액지원제도(CfD) 전환 배경...수익 안정성과 시장 경쟁 동시 유도

[\(2025.07.16\) 美 캘리포니아, 청정에너지 67% 돌파...연방 세제 축소에 전환 인프라 법안 추진 - Impact-on](#)

상상 첫 67% 청정에너지 달성...일일 100% 공급 시간도 대폭 증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풍력·태양광 프로젝트 차질 우려

[\(2025.07.17\) *RE100 산단 조성 속도낸다*...범부처 TF 출범·첫 회의 - 연합뉴스](#)

정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로 100% 가동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

일반 ESG 뉴스

ESG

[\(2025.07.11\) 미국 ESG 채권시장, 해외 기업이 89% 차지...사상 최대 - Impact-on](#)

도요타자동차, 도이체방크, 중국공상은행...미국에서 ESG 채권 발행
ESG 채권 발행액, 미국 7조원 vs 유럽 146조원

[\(2025.07.07\) 유럽 투자자들, ESG 규제 완화에 법적 대응 검토 - Impact-on](#)

기관 투자자들, ESG 부족한 기업에 대한 자산 배분 줄이고 법적 조치도 고려

[\(2025.07.07\) 日 공격 연기금들, ESG투자 확대...정부 연기금도 확대 기조 '명확' - ESG경제](#)

기관 투자자들, ESG 부족한 기업에 대한 자산 배분 줄이고 법적 조치도 고려

E (환경)

[\(2025.07.15\) 세계 재생에너지 71% 아시아에 집중...중국 주도, 한국은 3GW 추가 - Impact-on](#)

아시아로 쏠리는 발전설비...중국 독주 체제 강화, 한국은 4위
"2030년 3배 확대 달성엔 연 16.6% 성장 필요"...신재생산업 개발 시급

[\(2025.07.16\) 한국 기관투자자 78% "기후 리스크 인식"...실행력·정책 참여는 낮아 - Impact-on](#)

기후 인식은 높지만, 기후 거버넌스와 공시는 여전히 과제
투자 전략과 관여 활동은 미흡...전환 계획 구체화 필요해

[\(2025.07.16\) 관세 리스크에 해운업 전통 연료 부진... LNG·바이오연료는 월간 기준 '최고치' - Impact-on](#)

기존 연료 수요 위축... 대체연료 판매는 2배 증가
해운 변동성 지속, 선박 입항·컨테이너 물동량도 감소세

[\(2025.07.07\) 올 장마 일찍 끝난 뒤 폭염...기후변화로 장마 아예 사라질 수도 - ESG경제](#)

최근 장마 '전통적 형태'와는 멀어
중국 '메이위'도 전형적 모습 상실
지루하게 내리던 비 폭우·폭염으로
인위적 요인 장마 변화 원인 80%
수자원 확보, 벼농사에 차질 우려

[\(2025.07.08\) 혼합금융 돌파구... 'MDB 보수성·바젤 규제' 넘어야 - Impact-on](#)

다자개발은행의 보수성, 민간 자금 유입 가로막아
바젤 규제 개혁이 민간 자금 흐름의 열쇠 될 수도

[\(2025.07.10\) 전 세계 데이터센터 6% '기후 재난 고위험군'...아태 지역 집중 - Impact-on](#)

전 세계 데이터센터 6% 이상, 기후 재난 '직격'
기후 리스크 확산...아태·中·印 허브 타격 우려

[\(2025.07.11\) 국내 첫 탄소소레딤 레이팅 협의회 출범...그린워싱 해결 나선다 - 한국경제](#)

법무법인 린 등 5개 기관 참여
5대 분류 18개 평가지표 적용

G (지배구조)

[\(2025.07.15\) 행동주의 제안 '역대 최대' 통과...일본기업 7곳 주주제안 통과, 경영진 안건 30건 부결 - Impact-on](#)

총 7개 기업, 주주 제안을 통과...경영진에 맞서는 주주 압력 커져
상호 지분 구조 해소로 외부 투자자 영향력 확대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종목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pm 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기준일 (20250630)	매수 : 86.39%	중립 : 12.93%	매도 : 0.68%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ELW	주식	시장조성자 주식선물	주식옵션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포스코퓨처엠	-	-	-	-	-	-	-	-

포스코퓨처엠 :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괴리율(%)	
			평균주가				최고(저) 주	
	2025-07-22	매수	180000					
	2025-07-21	매수	180000					
	2025-04-17	매수	170000	-26.60	-4.78			
	2025-02-04	매수	200000	-33.05	-23.50			
	2024-11-20	매수	240000	-34.57	-22.08			
	2024-10-31	매수	280000	-27.16	-13.93			
	2024-07-26	매수	300000	-24.34	-13.83			
	2024-01-23	매수	380000	-26.64	-11.58			
	2023-10-25	매수	430000	-27.21	-14.42			
	2023-07-25	매수	650000	-36.62	-13.85			